

거시경제의 동향 및 전망

김성태(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)

요약 및 평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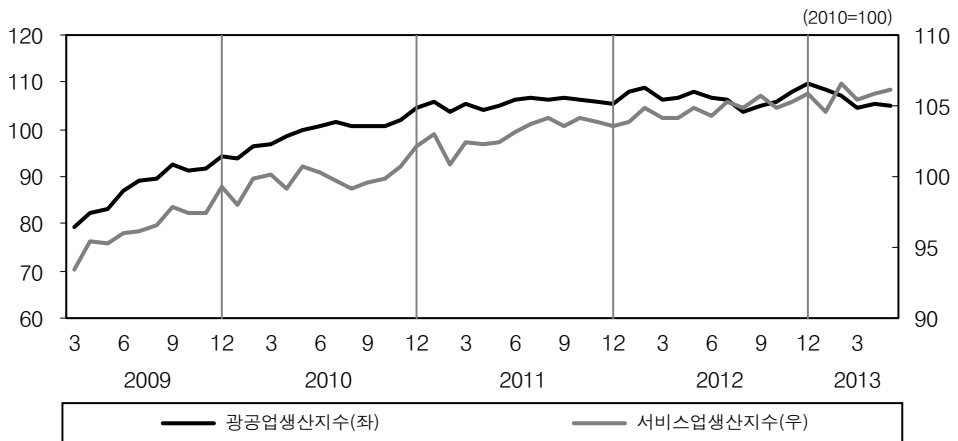
-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
 -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광공업 생산이 전기대비 감소로 전환되는 등 개선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
 - 내수는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,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
 -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, 소비 관련 심리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
 - 건설투자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,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모습
 -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고 수입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, 무역수지는 전월에 이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
 - 다만,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은 전월(17.7억 달러)보다 높은 18.4억 달러를 기록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
 - 노동시장은 취업자 증가세가 30만 명 내의 수준에서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, 임금상승률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
 -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1.0%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낮은 상승세를 지속
 -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의 영향으로 자산가격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변동성도 크게 확대
 -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
 - 주요국의 장기국채금리가 급등한 가운데, 금융시장의 주요 변동성 지표들도 상승

1)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모든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임.

■ 5월 중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광공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개선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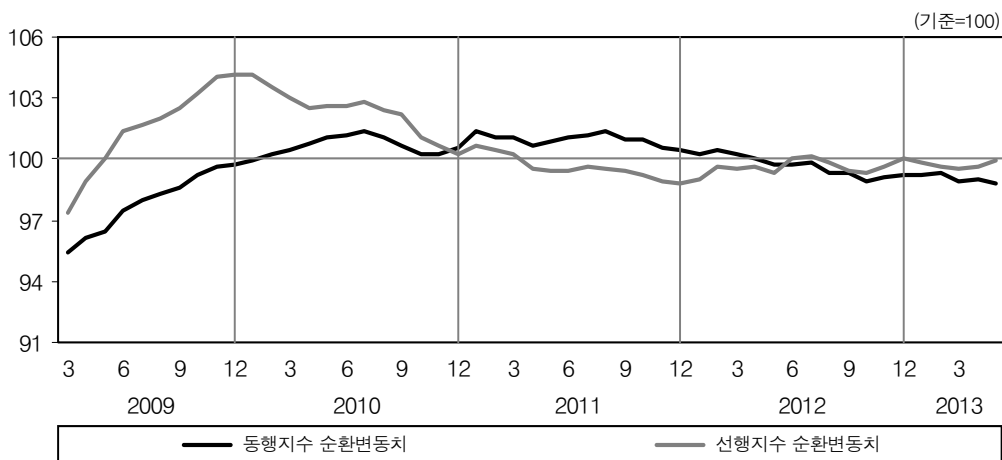
- ◎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-0.4%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감소로 전환
- ◎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.2%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월(0.4%)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축소
- ◎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.4%를 기록하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지속

[그림 1]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(계절조정)



- ◎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.2p 하락한 98.8을 기록하고,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.3p 상승한 99.9를 기록

[그림 2] 동행지수와 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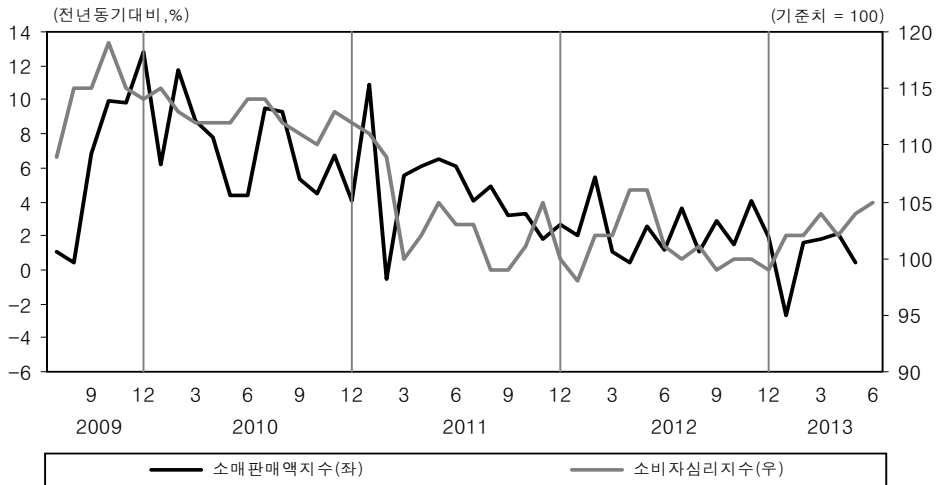


■ 5월 중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, 소비 관련 심리지표는 안정적인 모습

- ◎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반적인 증가세가 약화되며 전월(2.1%)보다 낮은 0.5%의 증가율을 기록
 - 부문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각각 1.5%, 0.8%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, 비내구재는 0.2% 감소
 -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소매판매액지수가 -0.2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, 전월에 비해 감소폭은 소폭 축소

- ◎ 6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105를 기록
 - 현재 경기판단은 전월보다 3p 상승한 82를 기록하였으며, 향후 경기전망은 전월과 동일한 97을 기록

[그림 3]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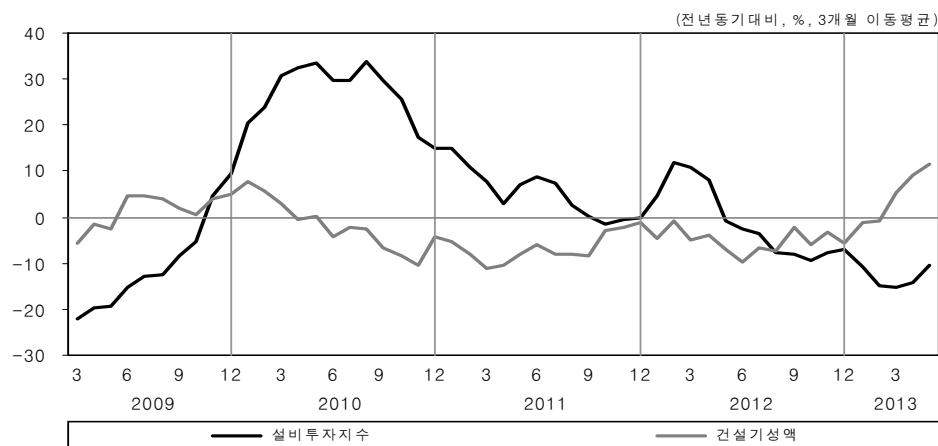


■ 5월 중 설비투자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, 건설투자자는 최근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

- 설비투자지수는 전월(-12.1%)과 유사한 -11.6%의 증가율을 기록
 - 품목별로는 기계류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송장비의 증가폭이 소폭 축소
 -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여 16.9%의 증가율을 기록

-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,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감소세를 지속
 - 건설기성(불변)은 건축 및 토목부문 모두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12.5%의 증가율을 기록
 -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건축부문의 부진 및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각각 19.1%와 12.9% 감소

[그림 4] 설비투자지수 및 건설기성액(3개월 이동평균)



■ 6월 중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고 수입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, 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

- ◎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및 IT제품의 수출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전월(3.2%)보다 낮은 -0.9%의 증가율을 기록
- ◎ 수입은 원자재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여 -1.8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, 전월대비 감소폭은 축소
- ◎ 무역수지는 전월(59.2억 달러)에 이어 큰 폭의 흑자(55.2억 달러)를 기록

5월 중 국제수지

- ◎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 및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전환 등으로 전월(39.3억 달러)보다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86.4억 달러를 기록
 - 상품수지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,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전월(35.4억 달러)보다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72.7억 달러를 기록
 - 서비스수지는 기타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전월(14.5억 달러)에 비해 흑자 규모가 축소된 11.3억 달러를 기록
- ◎ 금융계정은 순유출 규모가 전월(25.7억 달러)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115.8억 달러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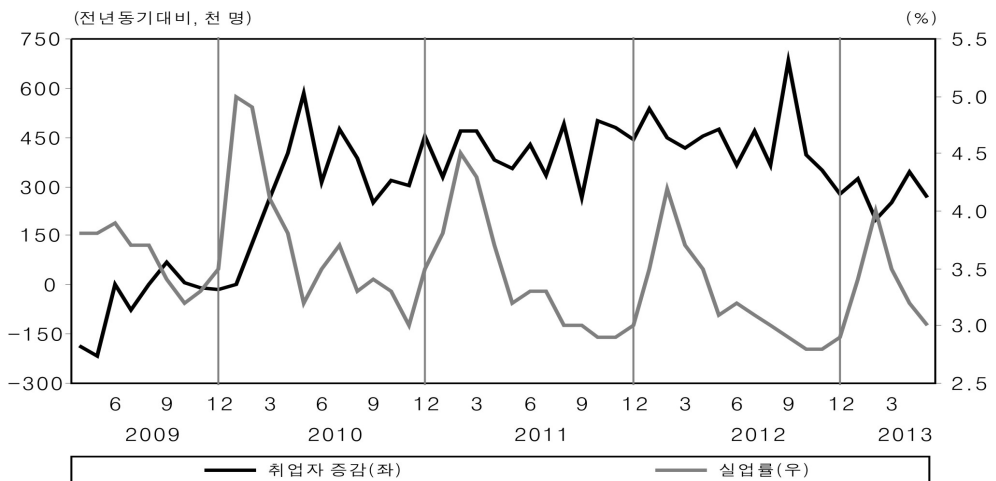
■ 5월 중 노동시장은 취업자가 26만 5천 명이 증가한 가운데, 임금상승률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

- ◎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 5천 명(1.1%)이 증가하며 전월(34만 5천 명, 1.4%)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
 - 산업별로는 서비스업(19만 7천 명, 1.1%)에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, 제조업(10만 4천 명, 2.6%)의 증가폭은 축소
 - 연령계층별로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, 15~29세 청년층은 감소세를 지속
 -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(45만 3천 명, 2.5%)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, 자영업자(-11만 7천 명, -2.0%)의 감소폭은 확대됨

- ◎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.1%p가 하락한 3.0%를 기록

- ◎ 4월 중 상용근로자(5인 이상 사업체)의 월평균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.8%, 3.5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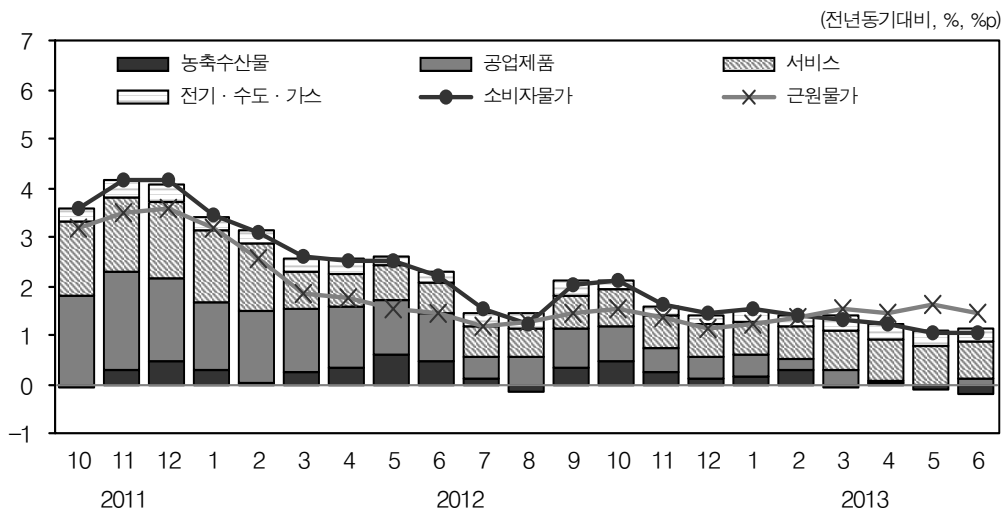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실업률 및 취업자 증감



■ 6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1.0%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낮은 상승세를 지속

- ◎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에 주로 기인하여 0.5%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
- ◎ 서비스물가는 전월(1.4%)에 비해 소폭 하락한 1.3%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낮은 상승세를 지속
- ◎ 근원물가(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)는 전월(1.6%)보다 낮은 1.4%의 상승률을 기록
- ◎ 한편, 아파트 매매가격(전월대비 -0.1%)이 소폭 하락한 반면, 아파트 전세가격(전월 대비 0.3%)은 상승폭이 확대

[그림 6] 소비자물가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



주: 부문별 기여도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지수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■ 6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의 영향으로 자산가격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

- 종합주가지수는 전월보다 큰 폭(137.7p)으로 하락한 1,863.3을 기록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전월보다 21.4원 상승한 1,149.7원을 기록
- 금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전월의 상승세를 지속
 - 국고채 수익률은 6월 말 현재 전월보다 10bp 상승한 2.88%를 기록
 - AA- 및 BBB- 등급 회사채 수익률은 모두 전월대비 17bp 상승한 3.31% 및 8.94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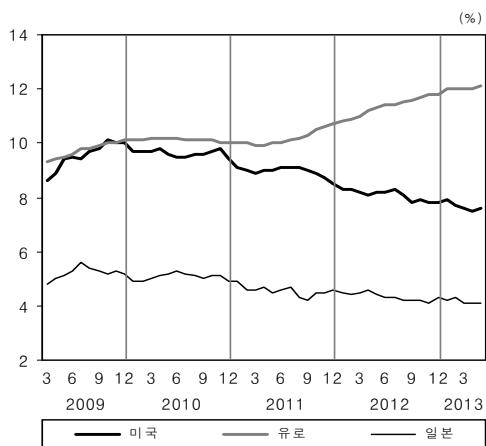
[그림 7] 환율 및 주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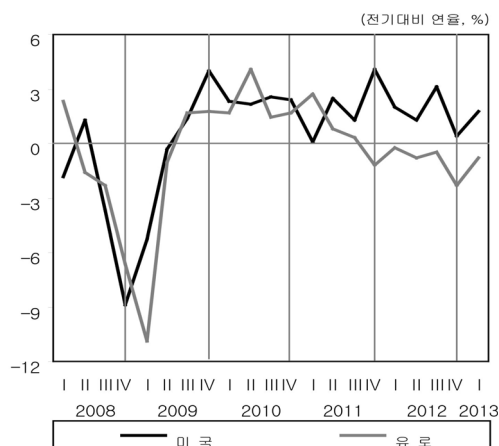
■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고,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

- ◎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1/4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, 유로존은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

[그림 8]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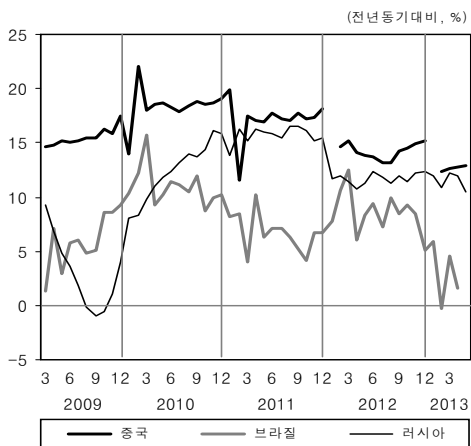


[그림 9]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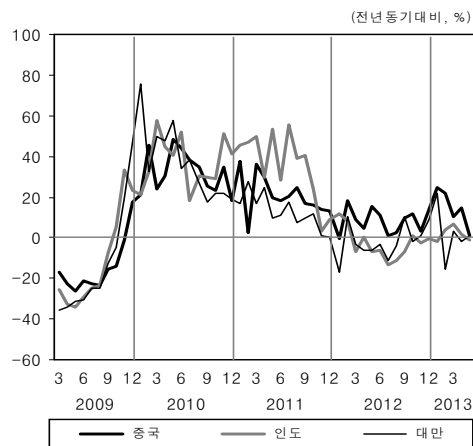


- ◎ 신흥시장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수출 등 일부 경제지표의 증가세는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

[그림 10] 주요 신흥시장국의 소매판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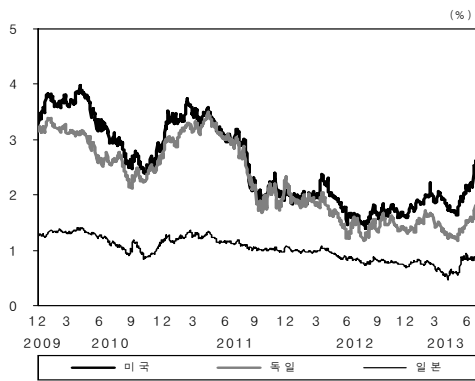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1] 주요 신흥시장국의 수출



-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
- ◎ 주요국의 장기국채금리가 급등한 가운데, VIX지수 등 금융시장의 주요 변동성 지표들도 상승

[그림 12] 주요국의 장기금리



[그림 13] VIX지수와 신홍시장채권지수

